

아세안 10개국 한자리에... 9일부터 서울에서 교통협력·상생방안 논의

- 9일부터 제14차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 대중교통·물류서비스의 디지털 방안 모색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9일 서울에서 「제14차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한다.

○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은 ‘10년부터 아세안 회원국*의 교통부처 고위 공무원(차관·국장급)이 참여하여 지역 내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연계성(Connectivity) 증진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협력의 장이다.

* 아세안 10개 회원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올해 포럼의 주제는 “아세안 대중교통 및 물류 서비스의 디지털화”이다.

○ 아세안 지역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디지털화의 속도와 범위는 역내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 아세안 회원국 전체의 동반성장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구현 수준을 끌어올리고 상호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 포럼의 주제는 이러한 배경에서 아세안측이 회원국의 디지털화 구현 정도를 조사하고 한국 사례와 비교하는 연구를 우리측에 요청함에 따라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 포럼 개최식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환영사, 말레이시아 교통부 자나 산티란 무니아얀(Jana Santhiran Muniayan) 사무차관, 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의 축사가 진행된다.

□ 포럼 공식 세션은 4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세션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측은 국토교통부의 교통 정책 소개를 시작으로 한국의 대중교통과 물류 서비스 분야 디지털화 우수 사례를 발표한다.
- 두 번째와 세 번째 세션에서는 아세안측이 각 국가별 디지털화 사례를 발표하고,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아세안 교통협력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면서 한국의 선진 사례와 비교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아세안 회원국간의 디지털 격차를 줄어나갈지 논의할 계획이다.
- 이번 포럼에서 첨단 디지털 기술을 통해 대중교통과 물류 서비스의 혁신을 만들어 낸 한국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아세안 회원국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돕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BIS 시스템, GTX, MasS(Mobility as a Service), 전국호환교통카드, 택배 배송서비스 시스템 등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1989년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맺은 이후 관계를 지속발전 시켜, 35주년이 되는 올해에는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예정”이라면서,

*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CSP) :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수립하는 최고 단계 파트너십

-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 아울러, 포럼 이후 7월 10일에는 아세안 각국 대표단이 올해 개통되어 운영 중인 GTX를 시승(수서~동탄)하고 동탄역 종합상황센터를 방문하여 한국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철도 분야 첨단 디지털 시스템 수준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공경화 (044-201-4563)
	국제협력통상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정훈 (044-201-3306)

1. 포럼 개요

- (추진배경)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09.6, 제주) 후속조치에 따라 '10년 이후 아세안 회원국* 고위급 대표(차관·국장 등)를 초청하여 매년 개최 중

* 아세안 10개 회원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時·所) '24.7.9(화)~7.10(수) /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 호텔

- (참석) 국별 수석대표, 한국 산·학·연 관계자 등 약 50여명

2. 프로그램 및 일정

- (1일차) 개회식, 공식 세션(4개), 포럼 회의록 채택, 공식 만찬

○ (개회식) 개회사, 환영사, 축사, 단체사진 촬영

- 개회사(국토부 장관), 환영사(한국철도공사 사장),
해외축사(아세안대표^{말레이시아}), 국내축사(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 (공식세션) “아세안 대중교통 및 물류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주제로 선정하고, 세부세션별* 주제 발표 및 토론 진행

* ① 한국의 대중교통 및 물류서비스 디지털화 현황 공유 ②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화 사례 공유 ③ 한-아세안 교통협력 사업 추진 현황 발표 등

○ (회의록) 아세안 사무국에서 세션결과를 종합 포럼 회의록 채택

- (2일차) 현장방문

○ GTX 홍보관 방문, GTX 시승(수서~동탄), 동탄역 종합상황센터 방문

참고 2

교통협력포럼 공식세션 세부일정

시간		프로그램		비고
08:30-09:00	30'	등록		
09:00-09:35	35'	개회식	개회사	국토부 장관
			단체사진 촬영	
			환영사	한국철도공사 사장
			축사 1	아세안 대표 (말레이시아)
			축사 2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09:35-09:45	10'	휴식		
09:45-10:45	60'	세션 1	한국의 대중교통 및 물류 서비스 디지털화	소재현 교수 (아주대학교)
			한국의 교통 정책 소개(15분)	국토부 교통정책총괄과
			대중교통 디지털화 우수 사례(15분)	이백진 박사 (국토연구원)
			물류 서비스 디지털화 우수 사례(15분)	허성호 교수 (서울대학교)
			질의 및 답변	
10:45-11:00	15'	휴식		
11:00-12:15	75'	세션 2	아세안 디지털화 사례 공유 1	여지호 교수 (가천대학교)
			아세안 사례 발표(10분씩 5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질의 및 답변	
12:15-14:00		오찬		
14:00-15:15	75'	세션 3	아세안 디지털화 사례 공유 2	우수민 교수 (건국대학교)
			아세안 사례 발표(10분씩 5개국)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질의 및 답변	
15:15-15:30	15'	휴식		
15:30-16:30	60'	세션 4	한-아세안 교통협력 사업 추진 현황	김성후 교수 (한양대학교)
			아세안 교통 인프라 PPP 진출 현황(15분)	KIND
			대중교통 및 물류서비스 디지털격차 연구 추진현황(15분)	KAIST
			질의 및 답변	
16:30-16:45	15'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 회의록 채택		아세안 사무국
16:45-16:50	5'	폐회사		국토부
18:30-		공식만찬		